

발로 뛰며 가슴으로 익힌 우리의 민속문화

《민속문화론서설》 펴낸 민속학자 심우성씨

“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속문화는 흐르는 물처럼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복구하기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단절된 민속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반세기 삶을 고스란히 바친 민속학자 심우성(65)씨. 백발 성성한 초로의 노인이 되었지만, 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도 소매자락을 걷어붙인다. 스스로 '개인적 정신사'로 여기는 최근 저서 《민속문화론서설》(동문선)은 평생 민속문화 지킴이가 되고자 했던 그의 면모가 흠뻑 느껴진다.

민속문화 실연 현장 찾아 떠든 반세기

우리 기층문화를 논하는 평론 40편을 담은 이 책은 민속학에 관련된 각 분야를 서설적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민속학 연구가 시작된 시점을 인물 중심으로 고찰한 〈민속학 연구의 근대적 개안〉, 민중의 정신 깊숙이 용해되어 흐르고 있는 민속의 원형과 개념을 찾아나선 〈민속문화 일반〉, 무형문화의 대표적인 내력을 추임하는 〈춤·음악〉이 앞서 소개된다. 민중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놀이문화를 통해 민속문화 전승의 당위성을 찾은 〈민속놀이·축제〉에 이어 인형·인형놀이, 탈·탈놀이, 뜬 광대·남사당패 등을 소개하여 민속 고유의 독창적 특성을 찾는다. 또한 〈민속연극〉을 개괄하며 전통극과 서구극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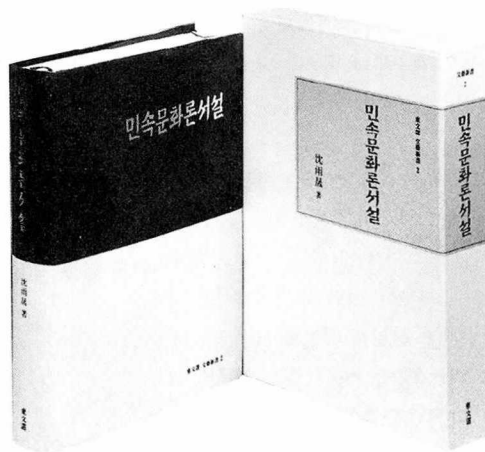
그의 논지는 민속문화가 실연되고 있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발로 뛰며 가슴으로 익힌 민속문화를 속속들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중심축을 두고 연구한 탓에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민속학은 따로 분야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야별로 조명하는 일은 후학들이 할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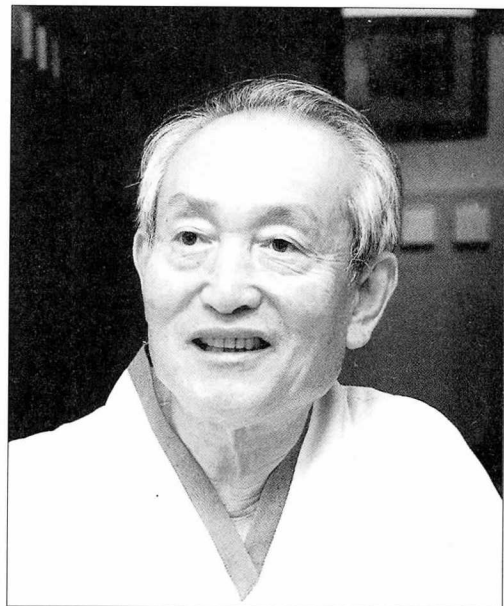
이론을 중시하는 일부 민속학자는 그를 '채야학자'라고 칭하지만 그런 소리가 대수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문화의 텃밭인 민속문화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남달랐던 만큼 심

단절된 민속문화를 찾아 되살려 놓는 데 반세기 삶을 고스란히 바친 심우성씨의 최근 저작에는 평생 민속문화의 '지킴이'가 되고자 했던 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심삿갓'이라 불리는 그의 별명대로 우리의 민속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던 현장 연구가의 생생한 결실이 이 한권에 들어 있다.



심우성씨.



우성씨가 걸어온 길은 험하다. 민속에 대한 사랑의 물꼬가 터진 것은 6·25시절. 난리를 피해 고향 공주로 내려가 골방에 숨어지내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김재천의 《조선연극사》와 같은 민속 관련 책이었다. 학창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했던 그에게 인형극과 남사당패놀이 등을 소개하는 책은 새로운 감흥으로 다가왔다.

“민속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우리 것에 대해 너무도 몰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관련된 책이라면 다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속 책의 바다에 폭 빠져 있던 그에게 흥미로운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바로 '탈'이었다. 집안 일을 거들어주고 있던 이로부터 남사당패에 대한 이야기를 거칠게 듣는 것도 본격적으로 민속에 관심을 갖게 된 시발점이 됐다.

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한 그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우연하게 '국악이야기' 프로그램을 맡은 뒤로 박녹주, 김소희씨 등과 많은 대담을 갖게 되었고 민속학자들과 함께 답사를 다녔다. 쌀 두 말 무게의 녹음기를 메고 방방곡곡 흠어져 있는 소리와 민속을 찾아나선 것이다. 무형의 민속을 지키고 있던 당진의 정일파, 대덕의 양도일, 괴산의 남우용씨 등을 만난 것도, 미친 듯이 떠도는 그에게 '심삿갓'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그때였다.

민속에 대한 관심에 매달리도록 만든 또 다른 계기는 64년에 시작한 무형문화재 지정 작업에 조사원으로 참여한 때부터 시작된다. 3년 넘게 또다시 전국을 떠돌지만 단

순히 조사원으로 머물지 않고 직접 남사당패에 들어가 실기하며 민속을 배웠다.

70년대 중반부터는 1인극 연구와 더불어 연극을 직접 실연했다. 〈쌍두아〉, 〈문〉, 〈무등산조〉, 〈넋이야 넋이로구나〉 등 지금까지 120여편을 발표했다. 또한 대학에서 한국연극사, 한국의 민속 등을 강의하며 평론집 《민속문화와 민중의식》을 시작으로 《남사당패연구》, 《한국의 민속극》 등 10여권의 저작을 펴냈다.

사재 털어 '민속극박물관'도 설립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에 참여한 뒤부터 지금까지 그는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지' 하자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민속문화를 보존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유 문화가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작업을 펼쳐왔지만 이제는 민속문화가 생활 속에서 자생하도록 힘써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흐르는 물과 같이 가변적인 민속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정작업’ 같은 인위적 장치가 아닌 민중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굵기야 사재를 털어 고향 공주에 '민속극박물관'을 세웠다. 민속을 배우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수련실'을 마련하고 '이야기 마당'을 통해 고유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계룡산 신령

제'를 지냈고, 9월 첫 금·토·일에 '아시아 일인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 원형을 지키고 파급하려는 안쓰러운 마음의 표출이다.

“요즘 예능인들은 우리 것을 너무도 몰라요. 모든 예술은 자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에 대한 애정과 애증 없이 독창적인 예술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르며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이 못내 서운한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예능인이 많아지기를 고대하며 그는 지금도 1인극을 통한 민족정신의 발현을 꿈꾸고 있다.

민속문화를 연구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의 역사적식은 명료하다. 앞으로 세계의 다문화가 공존할 경우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문화식민지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독창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주인 노릇을 못할 겁니다. 고착화된 민족문화란 없지만 외래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민속문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Introduction to Korean Folk Drama》와 《韓國의 人形芝居》 등의 책을 펴내 세계에 내놓았다. 반대로 세계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연극의 역사》, 《아시아 무용의 인류학》 등 13편의 역서를 펴내기도 했다.

우리 민속문화를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계속된다. 반평생 그래왔듯이 현장의 살아움직임과 느낌을 정리한 새로운 저작도 펴낼 계획이다.

— 오완진 기자